

[로병사의 이야기](3)

# “22살에 죽을 각오로 결사대에 나갔다”

—제대후 ‘연길시민’ 된 항미원조 중기관총수 로도현을 만나보다



항미원조 참전 용사 로도현의 젊은 시절과 현재 모습

“반장이 작전임무를 선포하고 전사들이 돌격대로 나가면서 청원서를 쓰던 정경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너도나도 이름과 고향, 고향집에 있는 연락 가능한 가족 이름을 본인이 입고 있는 옷에 쓰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있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70여년전 전쟁터에서 결사대로 나가던 장면을 회억하는 92세 고령의 항미원조 참전 용사 로도현(勞道賢)의 표준어에는 광동성 억양이 섞여있었다.

## 적들의 포화 속을 뚫고

1932년 9월,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난 로도현(한족)은 1949년 말 고향 광둥성 령산현(현재의 광서족자치구 흙주시에 귀속)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이듬해, 18세의 로도현은 국가의 호소에 적극 응응해 입대했다. 이렇게 중국인민해방군 보병이 된 그는 복상하여 항미원조에 참여하게 될 줄은, 약간년후 ‘연길시민’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1952년 항미원조전쟁이 지속되면서 로도현이 소속된 부대는 조선전쟁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루 저녁은 환정지부 주임이 ‘항미원조, 보가위국, 우리 함께 애국주의, 국제주의 정신을 발양해 영웅의 국제전장으로 나가서 세계 평화를 수호합시다!’라면서 동원 연설을 하는데 나와 전우들은 국가의 안녕을 수호할 중임을 떠맡아 한다는 군선 책임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라고 로도현은 회억한다.

로도현과 전우들은 기차로 료녕성 안동(현재의 단둥)시에 도착해 잠시 머물고는 압록강을 건너 조선 신의주에 도착한 뒤 서해안으로 이동, 1952년경에 개성 동북쪽에 이르러 163.3고지에 주둔하게 되었다. 고지 산기슭은 아군이 운송과 보급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경지로서 고지를 지켜내면 지원군이 적군을 한강 이남으로 몰아내는 데 최대한도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중대는 이곳에서 무방고지를 지키고 있는 적들과 대치상태에 있었다. 공중 화력과 지상부대가 배합된 적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포격으로 아군의 수송 통로를 봉쇄하고 있었다. 로도현의 부대는 적의 감시를 뚫기 위해 반격을 결심했다.

“적들은 우리 군의 움직임이 보이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총과 포를 쏘아냈는데 밤에도 신호탄을 쏘서 그 불빛에 목표물이 보이면 대포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우리 부대가 필요한 물자를 운반하고 병력이 이동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불리했다. 연구 끝에 적들의 무명고지를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부대의 작전 포치에 따라 량장이 작전 임무를 선포하고 대원들이 앞다투어 전투 청원서를 쓰게 되었다고 말하는 로도현의 두 눈에는 견정한 빛이 어려 있었다.

너도나도 청원하는 통에 련에서는 최종적으로 작전능력이 가장 강한 전사들만 선발하여 작전소조를 무었다. 그중에는 화력조, 폭파조, 엄호조도 있었다. 키가 작아 적군에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 우세로 로도현은 폭파조에 배치되었다. 폭파조는 전사들마다 낮에 이미 익히 살핀, 적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지형에 따라 수류탄 2개를 몸에 둘러맨 채 어둠을 타고 전진했다. 칠썩같이 어두운 밤, 폭파조 세명 전사는 철조망을 끊고 적의 포치가 앞으로 돌진하여 수류탄을 투척해 포치를 성공적으로 폭파시켰다. 이어 그들은 돌격총을 들고 포치가 안으로 뛰

다. 갱도전은 중국인민지원군이 항미원조전쟁 기간에 사용한 작전방법이다. 1951년부터 시작된 적의 대치 단계의 산지방어작전에서 적들이 절대적인 화력 우세로 낮에 지상 진지를 점령하면 지원군은 밤에 갱도를 리용해 반격하여 적을 섬멸하고 지상 진지를 빼앗아왔다. 적군의 맹렬한 포화 속에서 지원군은 ‘마치 땅속에서 솟아 나오듯’ 깜짝같이 나타나서 적들을 물리쳤다.

1952년, 개성 동북쪽에 이르러 163.3고지에 주둔하자 로도현은 전우들과 함께 주동적으로 갱도를 뚫았다. 조선의 산은 대부분이 돌산으로 단단한 데다가 야간에는 작전을 해야 했기에 갱도 굴착 작업은 낮에만 진행할 수 있었다. 어둡고 축축한 갱도에서 전사들은 쇠망치로 돌을 조금씩 파낸 뒤 폭파약으로 폭파해 길을 뚫었다. 환풍기가 없어 갱도에서 몇달씩 작업을 하다 보니 목에서는 시커먼 가래가 나왔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폭발물이 부족한 것이었다. 방어전전의 효과적인 확장을 위해 적들의 불발탄(哑炮)의 화약을 리용하자는 로도현의 제안은 부대 지도자의 비준을 얻었다. 로도현은 봉쇄지역으로 되돌아가 불발탄을 하나둘 메고 왔다. 200미터미터 직경의 포탄들의 무게는 100근이 넘었다. 포화가 바발치는 진지에서 로도현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총탄알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포탄을 요리조리 날렵



젊은이들 못지 않은 격양된 목소리로 혁명가요를 부르고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로병사 로도현(왼쪽)

여들이가 큰소리로 웨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이다! 폼짝 말았! We are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don't move!”

이번 전투에서 그들은 적군 8명을 사살하고 흑인과 백인을 포함한 3명 미군을 생포했으며 돌격총 등 무기를 회수했다.

## 적의 불발탄 주어가 ‘지하성’ 쌓다

조선전쟁에서 지원군의 용맹하고 완강한 혁명주의정신과 날렵하고 령활한 전략전술외에도 갱도가 중요한 방어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

하게 피하며 매일 포탄을 주어왔다.

“낮이라 적들은 폭격기로 포탄을 투하하고 포도 쏘고 기관총도 쏘다. 비결이 따로 없었다. 날렵하게 움직여 적의 포화를 뚫고 포탄을 주어야 했다. 포탄을 주어오면 또 분해하여 폭파약으로 쏘다.” 로도현은 그때 오로지 포탄을 가져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두려움을 잊은 채 포연 속에서 좌충우돌해야만 했다.

로도현과 전우들은 신속히 폭파약으로 갱도 굴착 작업을 이어가 견고한 방어공사를 구축했다. 이렇게 163.3고지의 갱도 방어체계는 점차 완벽해졌다. 갱도는 효과적으로 적들의 비행기와 대포의 빈번한 폭격을 막아냈고

전우들에게 안전한 은폐 장소를 제공했다. 적군이 포격하면 지원군 전사들은 신속히 갱도에 숨어들었고 적군 보병이 접근해오면 바로 갱도에서 뛰쳐나와 적을 무찔렀다. 이런 갱도 공사와 전술의 결합은 점차 미군의 무기와 장비 우세를 초토화시켜버렸다.

로도현 등 지원군 보병들의 대규모 갱도공사 구축과 갱도작전 진행은 방어작전에서 진지를 지키는 데 유리했고 진지 진공작전에도 효과적이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중국인민지원군은 1,250여 킬로메터의 크고 작은 갱도를 구축했고 6,250 킬로메터의 참호(塹壕)와 교통호(交通壕)를 파면서 도합 6,000만립방메터의 흙과 돌을 파냈다. 만약 횡단 1평방메터로 넓게 늘어놓으면 지구를 1.5바퀴 돌 수 있는바 이는 인류전쟁사의 또 하나의 기적이다. 우리군은 38선 진지 중심 10킬로메터 범위내에서 갱도를 주축으로 하고 각종 야전 참호를 결합하여 전투와 방어, 기동과 생활이 가능한 거점식 방어체계를 형성하였다.

중기관총수 로도현은 항미원조전쟁에서 3등공을 세웠을뿐더러 영광스럽게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귀국후 로도현은 선후하여 산둥성 유방시에 위치한 해방군 총후근부 제1예비학교와 산서성 대동시에 있는 해방군자동차프락토르관리학교에 파견되어 지식을 전수받았다. 졸업후에는 133사가 있는 연길시에 돌아와 계속하여 복역하였는데 그가 ‘연길사람’이 된 지도 어언 60여년 족히 된다. 1963년 제대후 석탄건설설계회사에 배치받았다가 1977년 연길담배공장으로 전근, 그 사이 그는 여러차례 각급 우수당원 등 영예를 따내고 1989년 정년퇴직했다.

“오늘의 행복은 수많은 전우들이 피 흘리고 목숨 바쳐 바꾸어온 것입니다. 이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힘이 닿는 대로 후대들에게 혁명이야기를 들려주고 혁명정신을 전하고 싶습니다.” 로도현은 현재 연길 ‘로병사의 집’ 의무강연단 성원으로 의무강연 행사 때마다 딸의 부축을 받으며 ‘로병사의 집’을 찾아 기타 로병사들과 합류해서는 수많은 후대들에게 혁명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현재 로도현의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연길 주둔 모 부대에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 있다.

로도현은 수많은 참전 용사들과 어깨 결고 불타는 청춘과 뜨거운 피로 눈물겨운 역사를 엮어냄으로써 후대들에게 귀중한 정신적 재부를 남겼다.

끝으로 로도현은 “오늘의 평화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당의 령도아래 국가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아름답게 건설하기 위해 공부를 잘하고 유능한 인재로 자라날 것”을 젊은 세대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 유경봉 리전 기자



## ‘길사판’, 의료보험가입증명 기능 추가

10월 16일, 길림성정부싸비스및 디지털건설관리국에 따르면 길림성에서 의료보험가입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더 이상 오프라인 창구에서 줄을 설 필요 없이 ‘길사판’에서 처리할 수 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길사판’ 첫 페이지에 로그인 → 【더 많음(更多)】 클릭 → 【의료보험(医保)】 클릭 → 【의료보험가입증명(医保参保证明)】 클릭.

얼굴 인증을 거친 후 자신의 의료보험가입증명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험 가입자 정보, 보험 가입 시간, 보험료 납부 월수 등 정보가 포함된다.

이미 발급된 의료보험가입증서는 【나의(我的)】 → 【나의 증명(我的证明)】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오건기자



## 연흥사회구역

## 최저생활보장 주민들에게 따스함 전달



연흥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이 주민에게 옷을 입혀주고 있다.

10월 16일, 연길시 건공가두 연흥사회구역은 본격적으로 싸늘해진 날씨에 대비해 살뜰히 모은 재활용 옷들을 사회구역 사무청사 앞에 진열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가져가도록 했다.

연흥사회구역에는 국가의 최저생활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비교적 많다. 주민 오씨는 “사회구역에서 계절마다 옷을 나눠주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옷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 너무 다행이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연흥사회구역 사무청사 1층에는 계절따라 옷을 가지런히 진열해 주민들이 수시로 자신한테 맞는 옷을 가져다 입을 수 있게 했다. 사회구역 책임자는 추울 때 찾아와서 따뜻하게 입고 가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고 전했다.

/ 리성복특약기자



## 장신사회구역로인협회 자원봉사자 표창대회 진행



10월 15일, 연길시 건공가두 장신사회구역로인협회는 ‘사심없는 자원봉사자 표창대회’를 진행했다.

사회구역의 일이라든 언제나 발벗고 나서는 리영자, 로명화 등 8명의 회원들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고 다년간 사회구역로인협회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온 진료소 의사 림해숙과 로주민 홍금자 등 6명도 표창받았다.

이들은 전국위생도시 건설, 관광도시 봉사 등 사회공익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역 건설에 일조했다.

로인협회 회장 임옥(73세)은 “7년전부터 협회 회장직을 맡아 오면서 협회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골간회원들과 애심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지금은 활동실, 활동자금, 오락도구, 공연

도구 등 협회 조건이 좋아져 자유롭게 활동을 조직할 수 있으며 사회구역에서 맡겨주는 행사도 제때에 담당할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쁘다.”며 사심없이 기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장신사회구역 서기 남려화는 “우리 사회구역에 우수한 로인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덕에 로인협회가 선진사회구역 건설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집단을 위해 기여하는 로인들에게 진심으로 되

는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행사는 협회 문예골간과 항미원조 참전 로전사 조춘자 등 로인들의 흥겨운 축하공연으로 현장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 박철원특약기자



연길 ‘로병사의 집’에서 진학가두 청년간부 령결교양 실천 활동에 참가한 젊은 간부들과 함께 활동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남겼다.